자료실 이용 가능…대출은 불가개선 보완 후 6월 1일 정식 개관사천지역 최초 시립도서관 ‘기대’  
  
  
  
사천시립도서관 전경. 6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임시 개관한다. 사천시 제공경남 사천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립도서관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임시 개관한다. 단순한 도서관 기능에 그치지 않고 문화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16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한 복합문화형 사천시립도서관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임시 개관한다. 시는 해당 기간 운영을 통해 개선할 점을 보완한 후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 개관 중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2~3층 자료실 이용은 가능하지만 도서 대출은 불가능하다.사천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정동면 예수리에 위치한 반룡공원 내 지상 4층·연면적 5270㎡ 규모로 준공됐다. ‘숲 속의 도서관’이라는 모티브로 자료이용 공간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구분해 활용된다.먼저 1층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130석 규모의 대강당과 북카페, 기획전시실 등이 설치됐다. 또 2~3층은 영유아, 청소년, 성인이 이용 가능한 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 4층은 도서관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비롯해 중회의실·동아리실·강의실·다목적실·미디어 창작실 등이 배치됐다.박동식 시장은 “사천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만큼 사천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